

卞光源의 痘疹과 麻疹에 대한 연구

-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와 『保赤新方』의 편제를 중심으로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
송지청*

A Study on Smallpox and Measles by BYUN Gwangwon

- Based on a formation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and The *Bojeoksinbang* -

SONG Jichung*

Professor at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The existence of specialized medical texts on a certain disease is reflective of its prevalence of the time. Smallpox and measles were major pediatric diseases, of which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outbreak of measles in late Joseon and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specialized texts, and how records of the two diseases in the general medical literature has changed chronologically. Research on the two diseases recorded in different texts written by the same author has not been conducted before.

Methods : Examina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smallpox and measles parts in the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and *Bojeoksinbang*, followed by comparative analysis was undertaken.

Results : While the two texts show great similarity in the general contents of smallpox and measle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way they were written. In the case of the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the author lists referenced literature, while in the *Bojeoksinbang* he does not. Also, compared to the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the *Bojeoksinbang* has detailed titles for the contents in both introduction and the detailed parts, while in the *Bojeoksinbang* there are content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along with more pattern differentiation in the former.

Conclusions : The *Yosandnagsinjipuibangkeumnangjibo* which was published in May of 1806 is a general type of medical text, in which the part on pediatrics is positioned in the first two volumes out of the entire 12 volumes, indicative of the author's emphasis on pediatric disease. The *Bojeoksinbang* which was published in December of 1806 discusses in-depth theories on smallpox and measles out of all pediatric disease, from which we can glimpse a specialized field of pediatrics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 BYUN Gwangwon, small pox, measles, pediatrics

* Corresponding Author : SONG Jichung

1 Haanydae Rd, Kyungsan, Kyungbuk

Tel: +82-53-819-1826 Fax: +82-53-819-1850, E-mail: prunedias@gmail.com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uly 27, 2022), Revised(August 14, 2022), Accepted(August 16,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소아전염병인 痘瘡과 麻疹은 조선 중기 『諺解痘瘡集要』와 조선 후기 『麻科會通』과 같이 전문의서가 간행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질환이었다.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의서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결국 해당질환이 당시 사회에 주요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선 후기 소아과 질환 중 두진과 마진은 대표적인 질환이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의서들이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송은 조선 후기 홍역의 발생과 전문의서의 편찬관계에 대해 밝힌 바¹⁾가 있으며, 또한 엄은 종합의서에 기재된 두진과 마진에 대해 통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살핀 바²⁾가 있었다. 하지만 변광원과 같이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서적 『樂山堂新集醫方』

錦囊至寶』와 『保赤新方』을 저술하였고, 이 두 서적에 수록된 동일한 질환인 두진과 마진에 대해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최근 여러 기관에 소장된 의서들을 살펴본 중 조선 후기 의원 卞光源(1781~1816)이 저술한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이하 『요산당』이라 간칭함)와 『保赤新方』(이하 『보적』이라 간칭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요산당』은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筆寫本 종합의서(그림 1)이고, 『보적』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折帖裝 筆寫本 두진·마진 전문의서(그림 2)이다. 『요산당』과 『보적』은 저자가 卞光源이란 사실 외에도,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 權訪(1740~1808)이 서문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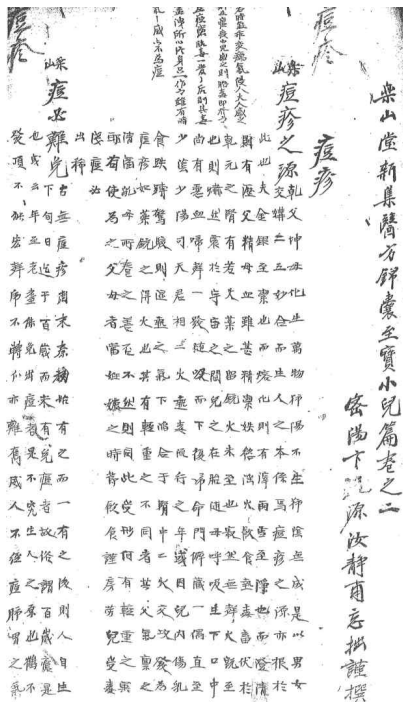


그림 1.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卷2



그림 2. 『保赤新方』卷1

- 1) 송지정, 이훈상, 이영채, 엄동명. 조선 홍역발생과 관련 의서 편찬관계 고찰-18C,19C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018. 31(2). pp.41-52.
- 2) 엄동명, 이병욱, 김유정, 송지훈, 송지정. 조선 후기 소아전염병 痘瘡과 麻疹에 대한 인식 변화-4종 종합의서를 바탕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1). pp.173-183.

權訪은 『보적』 서문에서,

通卞君光源 妙通醫學 既著樂山新方 (중략) 又取治痘之方 統會衆說 忝以己見 州次部居 金始玉終 以成一家之言 使世之人 觀形察色 執卷按方 隨症而投劑 審

幾而防微 於寒熱溫涼補瀉虛實之間 各得其宜 名之曰 保赤新方 (중략) 歲在丙寅 除月 下浣 鶴林病叟 權訪序라 하였는데, 그는 『보적』에 대해 ‘변광원이 이미 『요산신방』(『요산당』을 말함)을 저술하고도 痘瘡 치료에 대해 자신을 견해를 두어 후세 사람들이 약을 쓰도록 하는데 적당했고, 기미를 살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마땅함을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權訪이 이미 병인년 端陽(5월)에 『요산당』 서문³⁾을 썼는데, 다시 같은 해 除月(12월)에 『보적』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두 서적에 모두 변광원의 自序가 없으므로 언제 저술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없으나 서문 작성 시기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변광원이 『보적』을 저술한 시기도 대략 19세기 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卞光源이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편찬한 『요산당』과 『보적』을 비교하는 것은 종합의서와 전문의서에 따른 차이를 고찰할 수 있다는 측면과 두진과 마진에 대한 서술 차이를 고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진과 마진을 중심으로 두 서적의 편제를 살펴보았다.

II. 본론

『요산당』에는 총 12권 중 小兒編上(권1)과 小兒編下(권2)에 痘疹과 麻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적』에는 총 2권 중 권1에 두진 총론이 기재되어 있고, 권2에 두진 각론과 마진이 기재되어 있다. 두 서적의 차이점 중 하나는 『요산당』에서는 기존 의서를 인용할 때 의서 약칭을 표기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는 ‘樂山’이나 ‘新增’으로 표기하여 인용처를 모두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적』에서는 어떤 인용처도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두 서적은 다양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전체 내용을 표제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두 서적에 중복되는 내용은 좌우로 동일하게 정리하였으며, 한 서적에만 언급된 내용은 비교란에 ‘○’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두 서적에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원서의 순서상 같이 병렬하여 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원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표 1.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와 『保赤新方』 비교

대분류	소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비고
痘疹	樂山堂錦囊至寶 卷之二			保赤新方 卷之一	
	痘疹之源 樂山			痘瘡之源	
	痘必難免 樂山			痘必難免	
				痘名釋義	
	痘瘡預防 入門			痘有預防法	
				痘有可稀法	○
				痘有五善	
				痘有七惡	
		痘字釋義 新增			
		痘症辨 新增			
	痘有五症 海藏				
	痘瘡治法 丹心				
	痘瘡日限 丹心			痘有日限	
				治痘總論	
				攝養調治	
				首尾忌用涼藥	
			初熱症治	○	
	初熱症 諸方	○			
				初熱三日	
				五臟症俱見	
				初症與傷寒不同	
				熱甚則毒深熱微則毒淺	
				諸熱不可驟去	

3) 금유정, 엄동명, 송지청.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의 편제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3). p.38.

			大熱則利小便	○
			痘症辨	
			初熱時看面色	○
			憎寒壯熱視兒強弱調治	○
			汗後身熱不退	○
			發搖勿用驚風藥	○
			不出實症	○
			不出虛症	○
			熱盛發搖爲吉	○
	發熱時吉凶證 醫鑑		發熱吉症	
			發熱凶症	
		出痘症治		○
	出痘三朝 入門		出痘三朝	
	一日母痘見 入門	○		
	二日如粟出 入門	○		
	三日出痘齊 新增	○		
			發熱一日卽出	○
			初出時燈影照看	○
			地界不明	○
			毒盛熱不退	○
			痘不快出	○
			感風不出	○
			壯年皮厚不出	○
			觸穢不出	○
			脾冷不出	○
			解毒	
	出痘時吉凶證 醫鑑		初出吉症	
			初出凶症	
			飛痘	○
		起脹症治		○
	起瘡三日 入門		起脹三朝	
	四日水疱成 入門	○		
	五日尖癩指 入門	○		
	六日尖明義 入門	○		
			氣多血少	○
			虛穀無水	○
			中氣不足	○
			感風毒鬱	○
			四肢獨不發	○
			痘未熱而腫先消	○
			痘未腫而面先腫	○
			脣痘先黃綠	○
			毒結肉硬	○
			疫氣變黑	○
			觸穢黑陷	○
	起瘡時吉凶證 醫鑑		起脹吉症	
		貫膿症治		○
	貫膿三朝 入門		貫膿三朝	
	七日抱裏黃 入門	○		
	八日漿成滿 入門	○		
	九日能回漿 入門	○		
			氣穴縮不膿	○
			毒熾不膿	○
			灰白無膿	○
			觸穢不膿	○
			痘破成坑	○

			手足不膿	○
	貫膿時吉凶證 入門		貫膿吉症	
			貫膿凶症	
			收膿症治	○
	收膿三朝 入門		收膿三朝	
	十日蒼紫色 入門	○		
	十一日痂結 入門	○		
	十二日痂落 入門	○		
			氣虛不膿	○
			毒鬱不膿	○
			下身不膿	○
			流漿不膿	○
			觸寒不膿	○
			冒暑不膿	○
			熱極不膿	○
			膿未飽滿面腫先退	○
			觸穢不膿	○
			膿不能齊	○
			一節不膿	○
			皮趨不膿	○
	收膿時吉凶證 回春		收膿吉症	
			收膿凶症	
			結痂落痂症治	○
			落痂時宜用涼藥	○
			面不脫落	○
			昏昏喜睡	○
			痂久不落	○
			痂落癢紅	○
			痂落癢白	○
			虛煩不眠	○
			減癢法	○
	痘疹通治 醫鑑		通治	
	治法不過寒熱虛實 新增		治法不過寒熱虛實	
	治法又辨氣血陰陽 丹心		治法又變氣血陰陽	
	善治者能預察死生 新增		善治者能預察死生	
	痘疹宜隨地域調治 新增		痘疹宜隨地域調治	
	附孕婦痘瘡 入門		附孕婦痘瘡	
治痘諸法			治痘諸法	
	察痘色法 入門		察痘色法	
	辨痘順逆法 海藏		變痘順逆法	
	禁忌法 得效		禁忌法	
	穢神法 新增		穢神法	
	浴體法 本草	○		
	解毒法 回春			
	痘兒宜食物 俗方		宜食物	
	豆芽食物禁忌法 海藏		禁忌法	
	痘疹用藥禁忌 新增		用藥禁忌	
			保赤新方 卷之二	
痘瘡諸症			痘瘡諸症	
	驚搐 入門			
	聲音 入門	『保赤』聲啞		
	咽痛 得效	○		
	嗆逆 新增			
	弄舌 新增	舒舌 포함		
			發熱	

			起脹灌漿時	○
			結痂落痂後當變寒熱虛實治之	○
			寒熱	○
	寒戰 醫鑑		寒戰	
			發熱時	
			觸寒寒戰	
			養漿時	
			寒戰兼咬開	
	咬牙 綱目		咬牙	
	痰喘 回春			
	煩渴 綱目			
	嘔吐 回春			
	不食 新增			
	腰腹痛 得效			
	泄瀉 入門			
	痢疾 新增			
	下血 新增			
	虛脫 新增			
	便秘 正傳			
	尿澀 綱目			
	腹脹 新增			
	風邪 新增	○		
	啼哭 新增			
	讕語 新增			
	自汗 丹心			
	封蛤 新增			
			厥逆	○
			頭溫足冷	○
			水泡	○
			痘出時	
			起脹時	
			結靨時	
			水泡兼泄瀉	
			遍身水泡	
			血泡	○
	痘疔 新增		痘疔	
			出痘時	
			起脹時	
			收靨後	
			肉硬成疔	
			五臟疔	
	痘泡 新增	○		
	痘癩 新增	○		
	痘丹 新增	○		
	痘黑 新增			
	焦紫 新增			
	痒痛 綱目			
			痘癰	○
	斑爛 入門		癩爛	
			貫膿時	
			收靨時	
			結痂時	
			落痂時	
			陷伏	○
			紫陷	
			白陷	○
	無膿 新增			

塌陷 新增	○		黑陷	
黑陷 種杏			倒靨	
倒靨 入門			虛寒倒靨	
			風寒倒靨	
			熱毒倒靨	
			觸穢倒靨	
			痒	
			瘡乾而痒	
			瘡濕而痒	
			養漿時	
			收靨時	
			痛	
			腰痛	
			腹痛	
			腹脹	
			封蛤	
			口脣	○
			口舌	
			舒舌	
			弄舌	
			咽喉	○
			貫膿時	
			噎逆	
			噎吐	○
			飯逆	○
			聲啞	
			咳嗽	○
			痰喘	
			吐後喘	
			瀉後喘	
			譫妄	
			發熱時	
			成漿與欲靨時	
			中風	○
			痘出時	
			驚搐	
			痘既出而驚	
			靨後驚	
			倦怠	○
			起瘡後	
			痲落後	
			煩燥	○
			養漿時	
			收靨時	
			晝夜分	
			煩渴	
			發熱時	
			痘出或起發收靨時	
			不食	
			不食有虛實	
			貫膿時	
			不眠	○
			啼哭	
			狂叫	○
			自汗	
			失血	○

				發熱時	
				嘔吐噦	
				發熱時	
				收靨時	
				瀉利	
				起發時	
				成漿時	
				收靨時	
				吐瀉并作	○
				痢疾	
				尿澀	
				貫膿時	
				便秘	
				起脹時	
				大小便秘	
				起脹時	
	挾痰 新增			夾痰	
				痘初見時	
				養漿時	
				結痂後	
				夾疹	○
				痰涎	○
				痘母	○
				焦紫	
				痘黑	
				無膿	
				虛脫	
				囊腫	○
				疔瘡	○
				異症四種	○
				輕變重	
	輕變重 新增			輕變重	
	凶化吉 新增			凶化吉	
	護眼 入門			護眼	
	滅瘢 綱目			滅瘢	
痘後雜病			痘後雜病		
				雜症總論	
	痘後身青口噤 新增			身青口噤	
	痘後發搐新增			發搐	
	痘後再發 新增			嘔吐	
	痘後嘔吐 新增			再發	
	痘後寒嗽 新增			寒嗽	
	痘後咽腫 新增			咽腫	
				浮腫	○
	痘後暴痞 新增			暴痞	
	痘後心痛 丹心			心痛	
	痘後鼻塞 得效			鼻塞	
	痘後大小便秘或便血 新增			大小便秘或便血	
	痘後痢疾 入門			痢疾	
	痘後不食 入門			不食	
	痘後腎膜 入門			腎膜	
	痘後癰瘤 入門			癰瘤	
痘疹五經部分		○			
	刻諸經面部位次 新增	○			
麻疹			麻疹一名紅疹		
	麻疹之源 入門			麻疹之源	
	麻疹形症 入門			麻疹形症	
	麻疹治法 入門			麻疹治法	

	麻疹總論 新增		麻疹總論	
	麻後諸症 新增		麻後諸症	

Ⅲ. 고찰

1. 두진 총론에 대한 비교

『보적』에 기재된 두진 총론은 『요산당』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적』에서는 『요산당』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새로운 표제로 나누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산당』의 初熱症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적』에는 初熱三日, 五臟症俱見, 初症與傷寒不同, 熱甚則毒深熱微則毒淺, 諸熱不可驟去, 大熱則利小便, 痘症辨, 初熱時看面色, 憎寒壯熱視兒強弱調治, 汗後身熱不退, 發搐勿用驚風藥, 不出實症, 不出虛症, 熱盛發搐爲吉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痘症辨과 熱盛發搐爲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보적』에서 새롭게 증보한 내용이다. 다만 『요산당』에서는 出痘三朝를 一日母痘見, 二日如粟出, 三日出痘齊로, 起瘡三日을 四日水疱成, 五日尖癩指, 六日尖明義로, 貫膿三朝를 七日胞裏黃, 八日漿成滿, 九日能回漿으로, 收靨三朝를 十日蒼紫色, 十一日痂結, 十二日痂落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2. 두진 각론에 대한 비교

두진에 대한 각론은 크게 ‘痘瘡諸症’과 ‘痘後雜病’으로 나뉘는데 ‘痘後雜病’은 ‘浮腫’을 제외하고 두 서적에서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痘瘡諸症’은 두 서적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재 순서의 차이

『요산당』의 경우 痘瘡諸症으로 驚搐, 聲音, 咽痛, 噎逆, 弄舌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적』의 경우 發熱, 起脹灌漿時, 寒熱, 寒戰, 咬牙, 厥逆, 頭溫足冷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症의 기재순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보적」의 新增

『요산당』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보적』에는 새로운 병증들이 다수 기재되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起脹灌漿時, 寒熱, 寒戰, 咬牙, 厥逆, 頭溫足冷 외에도 厥逆, 頭溫足冷, 痘癰, 陷伏, 白陷, 口唇, 噎吐, 飯逆, 咳嗽, 倦怠, 煩燥, 不眠, 狂叫, 失血, 吐瀉并作, 夾疹, 痰涎, 痘母, 囊腫, 疔瘡, 異症四種 등은 『보적』에만 기재된 내용이다.

3) 표제로는 관련이 있을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른 내용

표제어로 보아서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요산당』의 痘泡 내용은 『보적』에서 水疱와 血疱로 나누어 설명한 것처럼 보이나, 『요산당』에는 水疱 내용만 있을 뿐 血疱 내용이 없으며, 『요산당』의 風邪 항목은 『보적』의 中風 항목과 완전히 다르고, 『요산당』의 咽痛 항목도 『보적』의 咽喉 항목과 내용이 다르다. 또한 『요산당』의 塌陷 항목은 『보적』의 白陷 항목에 내용이 일부 있으나 전체 내용은 차이가 있다.

4) 하나를 둘로 나눈 경우

『요산당』의 痒痛 항목은 『보적』에서 痒과 痛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요산당』의 弄舌 항목은 『보적』에서 舒舌과 弄舌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5) 내용을 확장한 경우

『요산당』의 총론 내용을 『보적』에 세부 항목으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한 것처럼 각론의 병증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이다. 『요산당』에서는 寒戰이란 표제를 두고 해당 병증을 설명하였는데, 『보적』에서는 寒戰에 대해 發熱時, 觸寒寒戰, 養漿時, 寒戰兼咬開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림 3. 『요산당』의 痘疹五經部分圖

6) 다른 표제이나 같은 내용

『요산당』의 聲音 항목은 『보적』의 聲啞 항목 내용과 동일하였다.

7) 삽화

『요산당』의 경우 『보적』과 달리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산당』은 위(그림 3)와 같이 五臟六腑 經脈과 연결하여 두진(痘疹)의 발현양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3. 『마진 비교』

마진과 관련하여 『요산당』과 『보적』의 기재내용은 표 1과 같이 차이가 없었다.

IV. 결론

본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와 『보적신방』은 卞光源이라는 醫人에 의해 작성된 의서이다.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는 종합의서이고, 『보적신방』은

두창과 마진 전문의서이지만,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에 小兒編을 서적의 제일 앞인 권1과 2에 둔 것과 『보적신방』을 저술한 사실에서 卞光源은 소아과 질환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된 두 서적은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대체로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에 기재된 내용보다 『보적신방』이 세분화된 편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가 종합의서이고 『보적신방』이 전문의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나, 두 서적 간 병증의 증감이나 병증의 분류 등을 살펴볼 때, 두창에 대해 『보적신방』이 더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3. 마진에 대해서는 두 서적간의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이미 연구된 사실(4)에서 보듯이 조선후기에 麻疹관련 서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배치된

4) 송지청, 이훈상, 이영채, 엄동명. 조선 흥역발생과 관련 의서 편찬관계 고찰-18C,19C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018. 31(2). pp.41-52.

5) 엄동명, 이병욱, 금유정, 송시훈, 송지청. 조선 후기 소아전염병 痘瘡과 麻疹에 대한 인식 변화-4종 종합의서를 바탕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1). pp.173-183.

다. 이는 아마도 卞光源이 개인적으로 마진보다는 두창에 대한 전문적인 의문이나 치료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진에 대해서는 새롭게 언급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선 후기 醫人인 卞光源은 안동지역 문신인 權訪의 序文과 함께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와 『보적신방』을 편찬하였다. 1806년 5월에 편찬된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은 종합의서이지만 小兒編을 총 12권 중 1,2권에 배치하여 소아질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806년 12월에 편찬된 『보적신방』은 소아질환 중 두창과 마진에 대한 전문적 의론을 서술하고 있어 소아전문의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보적신방』은 전문의서 답게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에 비해 두창과 마진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에 발견된 동일인의 두 서적에 기재된 두진과 마진 고찰을 통해 조선 후기 소아과 전문분야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기 소아전염병 痘瘡과 麻疹에 대한 인식 변화-4종 종합의서를 바탕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1).

5. 금유정, 엄동명, 송지청.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의 편제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3).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Daegu Haany University Kylin Foundation in 2021)

연구를 위해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자료를 제공해준 한독한의약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위해 『保赤新方』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국학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

1. 筆寫本.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2. 筆寫本. 保赤新方.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3. 송지청, 이훈상, 이영채, 엄동명. 조선 홍역발생과 관련이서 편찬관계 고찰-18C,19C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8. 31(2).
4. 엄동명, 이병욱, 금유정, 송시훈, 송지청. 조선